

# 첫째도 둘째도 '민생' ... 이재명, 오늘 대표연설 데뷔전

### 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첫...7대 입법 과제·중장기 전략 등 제시 강력 메시지로 지지층 결집... '유능한 대안 야당' 이미지 부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데뷔전'을 치른다. '거야(巨野)'의 수장이 된 이후 처음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오르는 이 대표는 연설을 통해 민생을 강조하며 '유능한 대안 야당' 이미지를 부각할 예정이다.

연설문의 방점은 이 대표가 최근 강조해 온 민생 경제에 쫓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때부터 강조해 온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시리즈'에 대한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이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에 대한 언급도 나올 수 있다. 또 기초연금·아동수당 확대를 비롯해 당이 선정한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도 전면내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표는 한국사회 현주소를 5대 위기(정치위기·경제위기·기후위기·인구위기·평화위기)로 규정하면서 미래 비전 등 중장기적 전략을 제시하는 데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치 공세성 발언은 최대한 지양할 방침이다. 실정(失政)을 지적하기보다 국정 방향을 제시하며 '유능한 야당 대표' 이미지를 강조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최근 외교장사나 정부의 시행령 통지 등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점으로 비칠 수 있는 내용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이 대표도 비판보다는 비전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이 대표는 정쟁에는 철저히 거리를 뒀다. 현안에 대한 발언이 많아질수록 민생은 사라지고 여야 간 공방만 남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알려졌다.

당 대표 취임 이후 각종 현안에 대한 취재진의 백 브리핑 요구에 침묵을 유지하는 것도 국민의힘

에 정쟁 소재를 만들어주지 않겠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대표는 최근 대외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불의를 방관하는 것은 불이다. 김대중 선생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 했다"고 적었다.

또 트위터에 해당 페이스북 글을 갈무리한 사진을 올린 뒤 "할 수만 있다면 담벼락에 고함이라도 치라고 하셨던 김대중 선생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 했습니다"라고 다시 강조했다.

지난 2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논란과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 "국민은 망신살이고, 아마 엄청난 굴욕감과 자존감의 훼손을 느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길을 잘못 들면 되돌아 나오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며 "거기서 또 다른 길을 찾아서 해매본들 거짓이 거짓을 낳고, 또 실수가 실수를 낳는 일이 반복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정부·여당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해의 순방 논란을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무대에 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번 대표 연설을 기점으로 민생에 더욱 방점을 두고 다른 한 편으로는 강력한 대외 비판으로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정기국회 입법에서는 민생을,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질타할 예정"이라며 "이 대표도 대표 연설을 통해서 민생을 강조하겠지만 해의순방 논란을 계기로 국민 정서가 크게 악화했다는 점에서 정국 현안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오른쪽) 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호남 민심 적극 반영해 정책으로 발현”

### 임선숙 민주당 최고위원, 광주시의회서 기자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임선숙 최고위원은 27일 “광주와 전남·북 호남민심을 제대로 파악해 민주당 내에서 정책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최고위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역민 의사를 제대로 읽고 민심을 수렴하는 창구를 만들어 소통의 장을 넓히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호남 뒤편으로 최고위원으로 지명된 데 대해 “어깨가 무겁다”며 “지역의 민심을 호남 정치에 반영해

민주당이 변화하고 사랑받는 정당이 되는데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호남의 심장이라고 얘기하고 한편으로는 종갓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는 간극이 있는 것 같다”며 “여러분들과 더 얘기하고 의견을 모아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비정치인으로서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는데, 경제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 여성, 농민,



어민을 위한 정책을 촘촘히 챙겨서 민생을 챙기는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대 출신 첫 여성 사시 합격자인 임 최고위원은 민변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 광주 여성민우회 대표, 5·18 기념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인화학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근로정신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여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5·18 조사위 활동기간 연장·인력 보강 필요”

### 이형석 의원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북구) 국회의원은 27일 5·18 암매장 사실이 42년만에 처음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 “5·18 행불자 전수조사와 함께 행불자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5·18진상조사위의 활동기간 연장과 인력보강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발굴된 유골 가운데 1기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23세였던 품방은 청년 Y 씨로 신원이 밝혀졌다”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지난 42년 동안 헛조각이라도 찾고 싶었다며 애타는 세월을 보냈던 유족에게도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암매장 유골의 신원 확인으로 5



·18 당시 광주교도소 암매장설은 사실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추가로 발굴된 유골 2기도 5·18 행불자일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5·18 행불자가 정부가 인정한 행불자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5·18 행불자를 78명으로 한정했지만 실제 행불자는 훨씬 많다는 방증”이라면서 “그분들 중 상당수는 전두환 신군부의 총칼에 학살돼 암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오광택 기자 kroh@kwangju.co.kr

## ‘2기 정의당’ 당대표 선거 5파전

### 이정미·김윤기도 출사표

정의당의 새 리더를 뽑는 당 대표 선거에 이정미 전 대표, 김윤기 전 부대표 등이 27일 잇따라 출사표를 던졌다.

이정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에 대한 걱정을 안심시켜 주겠다”며 “우리가 바라던 당이라고 하실 때까지 변화와 혁신의 길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기반 없이 중원으로 나갈 수 없다. 정의당의 흔들리는 기반을 다시 다지겠다”면서 “당의 기반은 일하는 사람들로, 일하는 시민들이 단결권과 협상권을 가지고 노동의 위기를 대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운동가 출신 이 전 대표는 민족해방(NL) 계열인 ‘인천연합’ 소속으로, 이미 한 차례 대표를 지낸 주류세력으로 평가받는다.

김윤기 전 부대표는 같은 날 ‘심상정 이정미 노선 연장 반대’를 외치며 출마했다. 김 전 부대표는 “국회

에 갇힌 정당이 아니라 국회와 거리 모두에서 강한 진보 야당으로 당을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대표는 “1기 정의당은 실패했다”며 “기득권 양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했고 우리에게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과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평가만이 남았다”고 비판했다.

전날에는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 이동영·정호진 전 수석대변인이 당 대표에 출사표를 던졌다.

정의당은 28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는다. 추가 출마의사를 밝힌 인사는 없어 이날까지 출마 선언을 한 5명 후보간 5파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를 뽑는 선거는 10월 19일로, 과반득표자가 없을 시 결선투표로 간다.

/연합뉴스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매월과정)**  
일시: 2022.9.13(화) 오후7시  
장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수강료: 풍수 + 사주 20만원 (매월)

**공개강좌(무료)**  
일시: 2022.9.6(화) 오후7시  
장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대상: 누구나 (선착순 00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액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2246-1508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63 - 9번지	264.8㎡
963 - 10번지	254.2㎡
963 - 11번지	225.8㎡
963 - 12번지	195.0㎡
- 합 계 -	
939.8㎡ 구 (284.3평)	

**매매가 71억원**

일반상업용지 용적율 1,100%  
사옥 및 메디컬센터 신축 부지 적합

(주) GK파트너스 컨설팅 010-3625-1362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